

나주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자격 '갑론을박'

지역 고교 출신 타지역 대학 나오면 대상서 제외

신규채용 지역인재 비율 광주·전남 12.3% 불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제가 지역 내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핫'(hot)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역인재 자격요건에 대한 불만과 함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신규채용자의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강제성'을 주겠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만 권고조항에 그친 탓에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이 10%대

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조치다. 실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도읍(자유한국당) 의원이 분석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2% ▲2015년 12.4% ▲2016년 13.3%다. 소폭 증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정부 권고치 35%를 크게 밑돌고 있다.

2014~2016년까지 2년간 지역별 신규채용시 지역인재 비율은 ▲부산(26.1%) ▲대구(16.1%) ▲충남(14.4%) ▲전북(12.8%) ▲광주·전남(12.3%) ▲경북(12.1%) 등 순이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할 경우 지역에서는 크게 반길 일이지만 지역인재 자

격요건을 두고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 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9조 2항)에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논란의 '맹점'은 해당 지역에서 고교를 졸업한 뒤 타지역 대학을 다니면 우선 고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고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도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지역인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로, 타지역 출신은 광주·전남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

에 다니고 있는 C모(26)씨는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랐는데 대학만 다른 곳에서 나왔다는 사실 하나로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역을 떠나있던 청년들도 다시 고향에 돌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인력과 인재들을 광주·전남으로 끌어 모아 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의 한 대학관계자는 "오로지 IN 서울"이라는 사회분위기가 개선되면 지역인재유출도 막고 수도권에서도 지방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며 "타지역 출신들이 정착하면 지역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에너지 ICT 4차 산업혁명 아이디어 공모전

한전KDN, 다음달 9일까지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에너지 ICT 분야 4차 산업혁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나가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정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대상은 에너지ICT 분야 사업모델과 사업아이디어(기술 포함) 등으로 에너지산업 분야와 ICT융복합 기술 분야로 나뉜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우수작을 선정

해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8월 9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개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한전KDN 홈페이지(www.kdn.com)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최우수상(1개)과 우수상(4개)로 이뤄지며 총 상금은 1700만원이다. 채택된 우수 아이디어는 구체화 과제 수행을 거쳐 협력사업화와 공동연구 과제 추진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 일자리 태스크포스' 운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원장 김창길)은 11일 '농업·농촌 일자리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일자리 T/F팀'은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해나가기로 했다.

T/F팀의 본격적인 운영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농촌 일자리 통계자료 수집 및 분석 ▲농촌 여건변화

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 모색 ▲새로운 성장산업이 농업·농촌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이다.

T/F팀을 이끌고갈 단장직은 송미령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마상진 연구위원, 김정섭 연구위원, 정도재 부연구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현장토론회와, 정책세미나,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해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는 물론,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한국농어촌공-중기진흥공단 업무협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임채운)은 11일 농어촌마을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체험·연수시설을 갖춘 농어촌 마을 활성화와 중소기업 재직자 및 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키로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마을 복합·체

험시설을 중소기업의 휴양·연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협력방안 공동발굴, 농어촌자원을 활용한 휴양·연수 콘텐츠 개발,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이다.

변용석 농어촌공사 부사장은 "협약을 계기로 농어촌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성공모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우주전파 교란 대응전략 모색

국립전파연구원, 콘퍼런스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유대선) 우주전파센터는 한국전자과학회와 공동으로 13일부터 14일까지 '제7회 우주전파환경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급격한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국내외 관련 전문가 36명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행사 첫날 미국 우주환경예측센터의 윌리엄 머터(William Murtagh)부센터장과 일본 정보통신연구기구(NICT) 마모루 이시이(Mamoru Ishii) 센터장이 기조연설에 나서 우주전파 교란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날에는 '전리층 및 우주방사선'이라는 특별세션을 통해 관련분야 연구자·수요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를 만든다. 우주방사선 분야와 재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관심사를 논의해갈 계획이다.

한편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2011년 설립 후 태양폭염 폭발에 따른 우주전파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연구자·수요자의 국내외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매년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aT, 농식품마케팅 대학 수료식 출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2017 농식품마케팅 대학 수료식'을 열고 농산물유통 개선과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 104명을 배

한국콘텐츠진흥원, 음악·인공지능 융합 콘텐츠 프로젝트 추진

음악과 인공지능이 만나는 혁신적인 융합형 콘텐츠 협업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오는 19일까지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음악, 인공지능을 커다'에 참여할 인공지능 관련 스타트업 및 개발자, 음악가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융합형 콘텐츠와 관련된 협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다양한 직종의 참가자들이 상호 학습하도록 설계된 스튜디오 모델형 교육과정으로 SM엔터테

인먼트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국내외 참여기관으로는 ▲퓨처플레이 ▲구글캠퍼스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융합예술센터 등 혁신과 융합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팀은 협업을 통해 ▲작곡 ▲플레이리스트 ▲스토리 ▲보이스 ▲뮤직비디오 등 프로그램에 3개월간 참여한다.

뮤지션과 인공지능 개발자가 함께 개발한 결과물은 데모데이 쇼케이스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인공지능 개발자 및 스타트업은 개인자격 또는 팀·회사 자격으로 지원가능하며, 음악가 부문은 작곡가, 프로듀서, DJ, VJ 등 다양한 직종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포트폴리오와 함께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이메일(CIP@kocca.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6310-0621.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여름휴가는 농촌에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서울 청계광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 체험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도농교류의 날 및 농촌여름휴가 캠페인' 행사를 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 매”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신안다리 옆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능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 - 1억 3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 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첨단에서 20분 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전기 수도등 기반시설 완비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나주, ㄷ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 주인직매

H. 010-3605-5000